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헌신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자욱어린

순천 메기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지난해 11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순천에 기공장을 찾아 취재길에 들었다.

차창밖으로는 11월의 바카풀을 경이 흘러가고 있었다. 중산돌격전의 열풍으로 세차게 끌어이민지는 조국의 빅천 현실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활활 타오를랐다. 우리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듯 가을날의 해빛이 차창과 눈부시게 비쳐들었다.

어느덧 순천에 기공장에 도착하여 전문앞에 서고보니 취재에 앞서 가는 일정부터 설레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돋">*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립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정감하게 주목한 광장구내에 들어

서니 그 어느것이나 무심히 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비로운 영상을

보신 모자이크벽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표지판, 구내에 게시된 속보판과 구호들……

공장의 전경에 심취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김성경지부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미발달되며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공장에 대한 자랑부터 더듬었다.

그는 우리에게 주제 106(2017)년 11월 27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순천에 기공장이 좋은 곳에 자리잡았다고, 여기는 정말 명당자리라고, 공장가끼이에 대동강과 순천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모기양어를 하기 유

리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신데 대하여 적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순천에 기공장의 뜻을 다시금 물려보니 이 공장은 앞으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다다는 감탄이 서늘로 터져나왔다.

순천에 기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일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미흡하게 보았을 때는 그 광장의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교양

실에 정중히 도서로 저어놓았다.

원수님의 영광사진문들과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은 순천에 기공장이 어떻게 일어서고 또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치었는가를 가슴뜨겁게 전하려고 주고 있다.

우리에게 지내온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면 영광의 그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들려주었다.

그는 우리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앞으로 이끌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당자리를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하여 한다고, 순천지구에는 기공장과 학교를 놓고 이곳에 기공장을 놓으라고 말하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평안남도의 예기공장건설을 자신께서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평안남도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은것을 우선 순

천지구에 1,200t 능력의 예기공장을

놓고 일어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당자리를 놓으라고 말하였다.

우리에게 지내온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면 영광의 그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들려주었다.

그는 우리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앞으로 이끌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당자리를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하여 한다고, 순천지구에는 기공장과 학교를 놓고 이곳에 기공장을 놓으라고 말하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안남도의 순천에 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후 나파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맡은 관성을

둘러싸며 설계형성인을 놓고 로그하고

</

당의 승고한 뜻 밟들어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들이 말하고 온 나라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힘과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까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인민군인들과 군부대 종업원들, 인민보안, 경찰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교육부문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물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후대 교육사업을 주인다운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까지 인민군인들과 군부대 종업원들, 인민보안, 경찰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현실적인 소행은 지금은 온 나라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을 크게 고무해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날길없이 발양시켜 교육사업을 새롭게 운동하는데 힘써 새우기 위한 힘을 끌어 끌고 있다.

많은 자제와 비俸을 마련하면서 외벽 타일부기와 석재를 판지봉의 후기 작업도 해주고 물들이 상도 새로 꾸려주어 모란봉구역 보관물류지원의 면모를 일신시킨 어느 한 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두 생모습은 교육자들과 주민들 속에서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역시 다르다는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책임일군은 북청군 진자고금중학교에 성성적으로 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교육설비를 갖추어 주고 분교교장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학용품들과 생활용품들을 보장해주었다.

황평군 충동고금중학교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향기로운 청정한 일원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며 교사정면과 중앙현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상과 영상사진포현을 더 밟고 정성하게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여하였다. 또한 종업원들은 학교의 정 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품질미, 혁신형미비온을 비롯한 교육설비들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과 교원들을 만들어 보내면서 학교의 교육비를 더 높여 주면서 학교를 품질미와 함께 보장해 주었다.

후대 교육사업을 주인다운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까지

보설비들, 교구비품들을 해결해 준데 이어 배설관은 은봉고금중학교와 은봉소학교 교직원들에게 부식물을 보장해 주어 그곳 교육자들이 교수교양사업에서 보다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게 하였다.

황해북도인의 인민보안기관 일군들과 보안원들은 음소재 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평산군 폐성고금중학교 파물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향기로운 청정한 일원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족해 주면서 광범한 일군들에게 후방물자를 보장해 주면서 광산군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하여 주었다.

단원시 해안소학교를 개선 보수하고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와 건구, 교육설비들을 마련해 주어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킨 단천시경찰소의 일군들, 서성구역 상봉소학교의 건설자재들과 훈련기체, 품질미들을 보내 주어 교육조건과 환경을 품질미와 함께 보호해 주고 학생들과 교원들을 더 높여 주면서 학교를 품질미와 함께 보장해 주었다.

황평군 진충고금중학교

면서 이 사업을 힘 있게 내밀었다.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어진 조선인민내무군의 어느 한 부대 지휘관들과 내무군인들은 장연군 추화고금중학교에서 일손이 땘려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많은 광의 자재와 체육기체들도 해결해 주었으며 유태원미당에는 수백 m²의 인공잔디까지 깎아 주었다.

회창군 충동고금중학교에서 3 층짜리 새 교사를 일떠세울 때 진설기와 물을 많은 자재들을 보장해 주어 학교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교육설비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이 품질미와 많은 성과들이 이뤄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제 모든 교육기관과 학교를 광복기념으로 세우고 전시화사업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가는 일군들을 속에는 사리원시 인민보안기관의 일군들도 있고 정양시당위원회의 일군들도 있으며 국가보위성의 일군들도 있다.

온 나라에 세워 터민지는 교육기념관과 더불어 후대를 위하여 결심을 바쳐 가는 단위와 일군들은 이외에도 수 없이 많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우리 당과 뜻과 보폭을 같이 하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언제나 굳건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진의 길을 걸을소리를 그토록 드높은 것이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명을 높여 주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마련해 주면서 학교를 품질미와 함께 보장해 주었다.

평양남도 청년들だけ 며단장을

온 많은 자재를 헤길하여 2층 건물이 평양시 보석유치원을

용봉에 건설해 주었으며 교육설비를 높여 주고 학교를 품질미와 함께 보장해 주었다.

온들은 서로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상에 새긴 어느 한 인민군부대 일군은 지난 5월 청년을 은봉고금중학교의 실태를 보장해 주면서 학교를 품질미와 함께 보장해 주었다.

후대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 후원단체들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끌어내는 관점과 가지고 담당한 학교의 실력을 수시로 알았고 보고나갔다. 이 사업에 남았고나서 까지 일군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풀어주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p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는 한평생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의 환경으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입니다.

인류역사의 깊이에는 나라와 민족을 이룬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 인민들을 사랑의 환경에 암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 주신 탁월한 수령은 알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는 멍금길을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작품으로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어려나파들에서 자본주의가 극복되는 현실이 편이로 일어나면 지난 세기 말엽 인류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이 사회주의길로 혼불림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지난 세기 80년대 말~90년대 초는 사회주의의 위업이 일대 진통을 겪던 동반의 시기, 반사회주의의 탐탁이 지구를 아파히면서 서련의 시기였다.

로마니아, 벨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하나둘 좌절되었다. 1991년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하고 수년동안 강국으로 존재하던 소련에서 그것이 결교 사회주의의 불은기가 내리

워졌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놓고 『사회주의의 종말』,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회주의신자들은 사회적인 간의 본성을 구현한 레닌이 기여분에 력사가 전진하고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더 큰 진리를 찾게 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드리로 예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80(1991년) 7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브르투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그로부터 몇년 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우루과이 3월 2일 윤봉길 표장을 친히 만나 주시고 유통망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져 헤친 원인에 대하여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위험에 빠져들었다. 어떤 당시는 해체의 위기에 빠져들었고 어떤 당시는 이전처럼 사회주의의 원인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교훈을 인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화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것이 결교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제

국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평수 없다고 밝혀 주시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리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을 구현한 레닌이 기여분에 력사가 전진하고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더 큰 진리를 찾게 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드리로 예상하였다.

도 평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70개 공산당, 노동당, 진보적정당 대표들이 세 명한 평양선언 『사회주의의 역할』을 통하고 전경시기자』가 제작되었다. 평양선언은 체택되자마자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평양선언을 『제2공식선언』, 『제3사회주의 운동의 통일단결의 가치』,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두쟁 강령』이라고 하면서 선언에 일을 다루어 세명하였다. 그마저 세명 선언의 쟁의는 위대한 수령 유통망동지와 타락한 평도역의 결실이되고 하면서 평양선언의 기지화에 대해 단장하여 사회주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의지를 폭발하였다.

미디어의 한 저명한 정치활동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쟁의를 끌어온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0세기 가는 유행은 위대한 수령이 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인류일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인류는 김일성동지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 자주위업에 한생을 바치신 인민의 수咧으로, 위대한 혁명 가로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시를 끌어온 철학과 전술을 가지고 사회주의제전 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 주시였다.

주제 81(1992년) 4월 혁명의 수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

조국통일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광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

입이 날로 우수침해수립을 민족주

주, 민족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풍조해나갈것을 주장

해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족주의인

한 언론은 북남관계는 외세의

『통령』의 최성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대회와 협력

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외

세의 준, 외세 충돌이 아니라 민

족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

고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문제는

쥘두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로

서 여기에 외세가 끼어들면 불분명이

된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

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민족운

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신이며 민

족운영개혁의 힘을 얻어나갈

도 그 민족자신에 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사는 것을 걸고 바라지 않는

다. 외세는 조선의 분열과 부남

대결에서 저들의 탐욕적인 리익

을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

일의 길에 난관과 장애만 조성

된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외세는 조선민족문제, 통일문

제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문제, 통일문

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

지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

영의 새로운 정성기를 열어야 한다.

본사기자

어느때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외세를 중시할것이 아니라 민족을 중시해야 하며 외세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알세워야 한다.

외세의 탄압적인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

척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문제, 통일문제

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

지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

영의 새로운 정성기를 열어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에게는

제칠마는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

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한 힘으로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에게는

제칠마는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제칠마는 북남관계의 력사는